

“美,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됐다”

셔크 전 미 국무차관보 “비핵화를 위해 좋은 생각” 양국간 불신·격차 해소...상호 신뢰 구축 방안 기대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고 수전 셔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말했다.

셔크 전 부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몇 년 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 미국과 북한이 개설에 합의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를 위해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FA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연락사무소 개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리 카지야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은 11일 “지난 70년간 소용 단절로 생긴 불신을 뛰어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상대방 수도에서 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한다면, 불신과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FA는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요구한 뒤 상응 조치를 제안하는 것은 북미간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비핵화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만 전면에 내세우고, 체제 안정과 경제적 보상이란 상응 조치를 뒤로 미루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다. 동시에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아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양보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도 체제 안정과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경제 지원을 해



지난해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

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 의회 등의 대북 강경파 사이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이처럼 양국간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일부 폐기를 포함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검증 등을 받아들이고, 미국은 상응 조치에 동의한다면 신뢰 구축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

“미·중 무역협상, 합의초안 마련 집중”

WSJ, 실무협의 시작...14~15일 베이징서 고위급 회담도

미국과 중국이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둔 가운데 실무협상에서 양측간의 이견을 조율한 합의안 초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위급 무역협상에 앞서 지난 11일 시작된 미·중 차관급 협상에서 양측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등 정부 주도 경제모델 정책은 공산당 통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문제가 무역협상의 의제가 되는 것을 꺼려왔다.

미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들을 개선하는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달 워싱턴을 방

문한 자리에서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제품, 서비스 구매를 늘리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금융서비스,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시장개방 노력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은 특정 정보와 기술을 중국 당국과 중국 기업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압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위축된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에 앞서 제프 케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은 지난 11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측과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로버트 라이더가 이끄는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고위급 무역협상에 앞서 지난 11일 시작된 미·중 차관급 협상에서 양측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



베네수엘라의 야당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12일 집회에서 국내에 절실히 필요한 미국제공 구호품의 반입시한을 23일로 발표했다. 뉴스

과이도, “미국 구호품 반입 허용”

23일부터...마두로 퇴진운동 상승세 꺾일 우려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합법적 대량으로 인정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야당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12일 집회에서 국내에 절실히 필요한 미국제공 구호품의 반입시한을 23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물품반입을 두고 더 큰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11일이나 연기되어 마두로 퇴진운동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과이도는 12일 환호하는 수만명의 군중에 둘러싸인 채 2월 23일을 지난주부터 마두로의 거부로 콜롬비아 국경지대의 창고에서 대기 중인 미국의 구호품을 받아들이는 날짜로 정해서 발표했지만, 자세한 행동의 세부 작전은 밝히지 않았다.

하루가 다급하게 절실히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등을 11일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베네수엘라 국민은 다소 실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200만명이 이 나라의 살인적인 수퍼 인플레이션과 식량, 의약품 부족의 생활고를 피해 외국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최저 임금은 이미 한 달에 6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수도 카라카스 시내에

서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이 흔하게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과이도는 이 날 카라카스 광장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지금 당장은, 나는 군대에 이 명령을 내린다.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외쳤다.

이런 권위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권력을 좌우하는 보안군이 그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군부는 지난 달 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뒤에야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한 이 무명의 정치인 지지를 두고 아직도 그의 뒤에서 흔들리고 있다.

과이도는 마두로의 거부와 봉쇄로 콜롬비아 국경도시 쿠쿠타에서 대기 중인 구호품을 어떻게 반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다만 베네수엘라인들의 수송대 캐러밴을 동원하자고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칫하면 보안군과의 대규모 충돌로 더 큰 폭력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

35세의 젊은 새 지도자 과이도가 지난 달 23일 대통령임을 스스로 선언한 이후, 시위대와 군의 충돌과정에서 이미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뉴스

美, 개우리에 갇힌 굶주린 아이들 4명 발견

미 텍사스 북부의 전원도시에서 12일(현지시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양실조상태의 굶주린 아이들 4명을 발견했으며 그 중 2명은 먹을 것이 잔뜩 쌓인채 자물쇠로 잠겨있는 음식 창고 안의 갇혀있던 최우리에 갇혀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포트워스 시 외곽 32km지점에 있는 와이즈카운티 경찰 소속의 레인 에킨 보안관은 부부싸움이 벌어진 집에 출동했을 때 아이들이 발견된 곳은 집 옆의 창고 안이었으며, 바로 옆에는 많은 음식물들이 자물쇠에 잠긴 채 보관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탤러스 모닝뉴스지에 따르면 발견된 아이들은 가장 큰 아이가 5살이었고 5세, 3세, 1세의 남자아이와 4살짜리 여자 아이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옷

도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채 동오줌으로 더러운 상태였다. 아이들이 갇힌 개우리는 가로 세로가 90cm밖에 안돼 비좁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에킨 보안관은 “경찰관 생활 44년 동안 이런 최악의 아동학대는 처음 보았다”면서 “자녀들을 개우리에 가둔 것은 처음 보았고 정말 속이 뒤집히는 광경이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아이들은 모두 포트워스 시내 쿡 아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대변인은 영양실조상태인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했다.

경찰은 집안에 있던 아이들 엄마와 그녀와 싸우고 있던 얼굴을 다친 남성을 아이들 4명에 대한 4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윤슬의 아침_나주

명품 전원주택단지 분양

총 33 필지 기반 조성중! **061.334.3040**

(주)디디하우징 최고의 조망, 숲세권!!
동신대 한의학관 바로 옆

UO work 중개비용이 성과가 되는 권 **보증금 0 / 관리비 0**

유요워크 금점 최대규모 **24시간 운영!!**

소호사무실 입주사 모집

- 특장점
- 보증금,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없음
- 최고급 인테리어, 사무집기 무료제공
- 무인 우편, 택배 보관 가능 • 0A기기, 회의실 이용 무료
- 사업관련 제휴업체 연계(세무, 법률 등)
- 카세어링 서비스 •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 사무장 • 주차장 • 산소발생기

UO work 금점 Tel. 1800-5711
광주 동구 금남로 193-22 (금남로4가역 4번출구 2분거리)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캠핑카 주문제작·판매

푸드트럭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합동·승용·합동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한국어든 **062)522-2424** 전남 전지역 **061)375-8824**
영어든 **062)522-2424**

※ 견적은 무료이며 이사장비가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본심판소시 제정경비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가구·싱크대·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